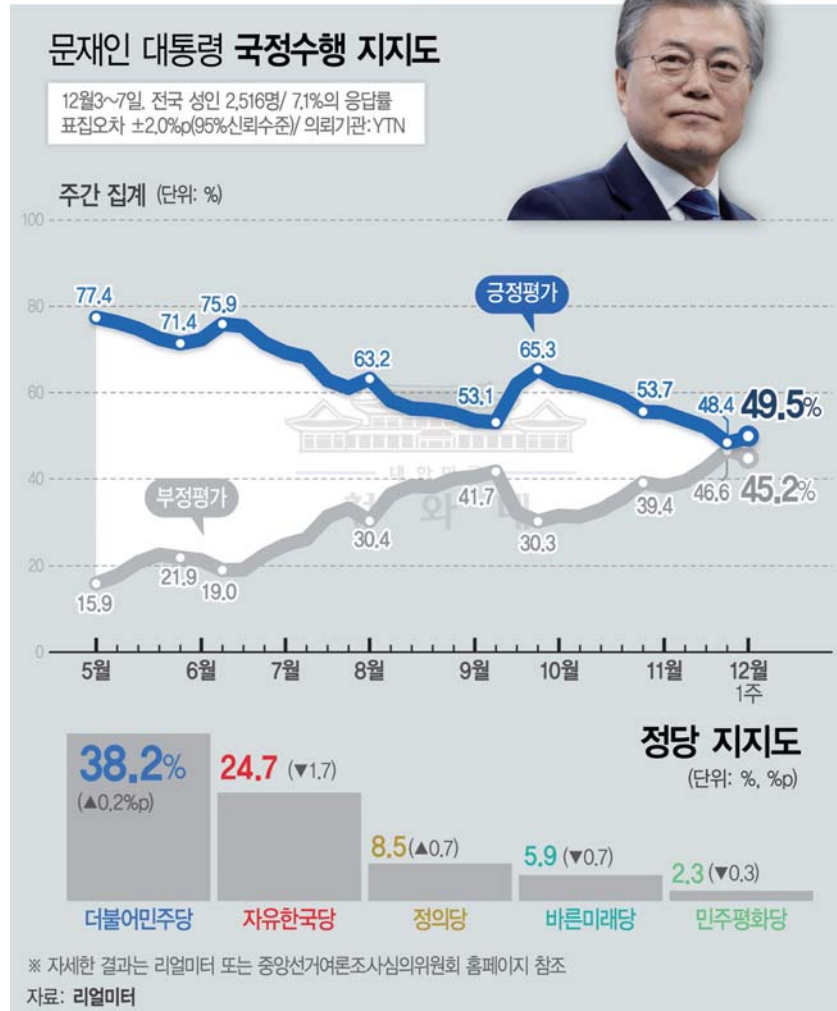


# 文대통령 지지율, 49.5%...소폭 상승

민주 38.2% · 한국 24.7% · 정의 8.5% · 바른 5.9% · 평화 2.3% 順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전주 대비 1.1%p 오른 49.5%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7일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공개한 11월 4주차 주간 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p·응답률 71%)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5%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가는 지난주 대비 1.4%p 내린 45.2%(매우 잘못함 28.1%, 잘못하는 편 17.1%)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3%p 증가한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9월 4주차(65.3%) 이후 11월 4주차(48.4%)까지 두 달 동안 16.9%p라는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한 데 따른 자연적 조정 효과"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30일 48.1%로 마감한 지지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남북 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확산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논란이 불거진 3일엔 48.9%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4일 49.7%로 소폭 올랐으며,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의 공식기강 강화 지시가 있던 5일에는 49.8%를 기록했다.

이후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보도가 확산된 6일에는 50.4%로 상승했다. 그러나 KBS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인터뷰를 놓고 논란이 확산된 7일에는 48.7%로 다시 하락했다.

세부 지역·계층별로는 서울, 40대, 남성, 사무직과 노동직, 진보층에서 하락했다. 반면 경기·인천과 충청권, 부산·울산·경남(PK), 호남, 30대와 50대, 60대 이상, 여성, 학생과 주부, 자영업, 중도층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 대비 0.2%p 오른 38.2%를 기록하며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췄다. 자유한국당(24.7%), 정의당(8.5%), 바른미래당(5.9%), 민주평화당(2.3%) 순으로 민주당의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식농성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지도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손학규 "정치개혁, 당 최대 과제...저를 바칠 것 약속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첫걸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0일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치개혁이 바른미래당의 최대 과제다. 이를 위해 저를 바칠 것을 약속한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손 대표는 "의석을 배분해서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념으로 쫓겨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희망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최종적 목표"라며 "세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방향과 결정을 확실하게 합의하고 계획과 과정까지 합의해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 사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기본적 방향 없이 정개특위서 논의하는 건 하세월이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승자독식'의 양대 정당의 폐단을 지적하며 물리쳐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독단적 국정운영에 몰입하고 있다. 지금껏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 모두가 장관에 기용됐고 대통령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평화-민주당 협치종료 선언... "기득권 대야함"

민주평화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치종료"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마당에, 조전없는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이어 "동맹으로 예산안은 처리됐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삶은 2017년이나 올해, 내년도 여전히 현상유지의 삶, 불안과 절망을 뼈저리게 느낄 수 밖에 없다"며 "평화당은 정의당·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셀프세비 인상 반대 뿐 아니라 원상회복과 반납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의 본질은 나의 삶을 개선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 개혁"이라며 "그런데 본질이 오도되고 마치 소수정당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수정당의 이익에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

## 리얼미터 "김정은 국회 연설, 찬성 46.7% vs 반대 40.2%"

30·40대 찬성 과반수 넘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에서 연설 하는 것에 대해 찬성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7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3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4%p·응답률 6.0%)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게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20.0%, 찬성하는 편 26.7%)이 46.7%로 나타났다. 10일 밝혔다. 반대(매우 반대 25.7%, 반대하는 편 14.5%)는 40.2%였다. '모름·무응답'은 13.1%다.

리얼미터는 "호남과 서울, 30대와 4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한 반면, 대구·경북(TK),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은 반대

가 우세했다"며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PK), 20대와 50대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고 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0.8% vs 반대 16.9%)에서는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했다. 보수층(19.3% vs 69.3%)에서는 반대가 70%에 근접했다. 중도층(47.2% vs 40.4%)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0.5% vs 12.5%)와 서울(51.6% vs 30.8%), 경기·인천(48.5% vs 43.0%)에서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대구·경북(31.6% vs 60.0%)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46.9% vs 46.1%)과 대전·세종·충청(40.2% vs 40.8%)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47.8%)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50대(49.0% vs 47.4%)와 20대(39.4% vs 36.8%)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뉴스스

지역공감·미래창조·전문직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